

「동정자료」

박선호 차관, “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우는 나라 위해 최선”

**20일 중랑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돌봄시설 첫 개소
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육아 인프라 지속 확충 추진키로**

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9월 20일(금)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내 아이돌봄시설 개소식에 참석하여 돌봄시설을 둘러보고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와 만남을 가졌다.

* (참석) 박홍근 의원, 류경기 중랑구청장, 변창흠 한국주택토지공사 사장 등
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개·보수를 거쳐 혼인 7년 이내 저소득 신혼부부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, 금년부터는 매입임대주택의 1층 공간을 활용한 아이돌봄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공급한다.

* '22년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.4만호, 아이돌봄시설 100개소 공급예정

이번에 개소한 '1호 아이돌봄시설'은 신혼부부 77세대가 입주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*에 조성되었다.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랑구청에 1층의 상가공간을 무상임대하고,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. 임대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.

* 서울 중랑구 단지형 다세대주택 8개동 77세대 입주

시설은 67㎡ 규모로 블록놀이공간, 독서공간 등 테마별 놀이공간이 설치·운영된다. 9월 24일부터 주5일 하루 7시간(화~토, 10~17시) 운영되며, 중랑구민인 경우 인터넷 사전예약 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. 한편, 오는 10월 서울 서대문·동대문구에서도 2·3호 아이돌봄시설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며, 연내 지방권을 포함해 10개소가 공급된다.

박 차관은 돌봄시설을 둘러본 후 주택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만나 입주소감과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 등도 경청했다.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“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「주거복지로드맵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2019. 9. 20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참고 1

아이돌봄시설 사업 개요

□ 사업개요

- (목적) 건설임대주택은 보육시설 설치 및 육아지원 서비스 등 신혼 특화형으로 공급하나, 매입임대주택은 적용 곤란
⇒棟단위로 매입한 다세대·다가구주택 일부를 아이돌봄시설로 개조, 가정어린이집 등 공동 육아공간으로 활용
- (운영)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에 상가 매입을 위한 출·용자 지원, 사업자는 상가 매입 후 지자체 등 운영기관에 무상·저가임대

□ 1호 사업

- (위치)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30길 89, 신혼 매입임대주택 1층
- (운영)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“도란도란 공동육아방”으로 운영
* 주5일 일7시간(화~토, 10~17시) 운영, 테마별 놀이공간 운영 및 특화행사 개최
 - (주요시설) 영유아 놀이활동공간(연령별 장난감 및 도서 등 비치), 부모 휴게 공간, 수유실 등 편의시설
 - (이용방법) 중랑구청 홈페이지 “공동육아방”에서 사전예약 후 이용
 - (조 감 도)

